# 십자가 38선 월북자

## (출32:1~35)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38선 월북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 38선 월북자'
38선과 휴전선은 다릅니다. 38선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미소양국에 의해서 그어진 군사분계선입니다. 38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들어와서 있게 됩니다. 휴전선은 38선으로 양분되어졌던 북한과 남한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전쟁이 3년 만에 휴전을 하게 되는데 53년 7월 27일 0시를 기해서 휴전을 할 때 그 휴전 당시의 최전선이 그대로 휴전선이 되어서 38선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38선을 얘기할 때는 남북분단의 경계선인 상징적의미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8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북한입장에서 보자면 항상 월남, 남한으로 넘어가는 주민이 문제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월북하는 주민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늘 적대적 감정을 숨길 수가 없고 또 주적이기도 합니다. 속된 용어로 빨갱이로 지칭을 하면서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민도 교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이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마음이 이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뿐이고 통일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데 인간세상이에요. 그러나 선민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하늘과 인간세상이 펼쳐져 있는 땅으로 분단이 돼있습니다. 골3: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

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위의 세계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가 분단된 상태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단됨의 경계인 38선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38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십자가를 넘어서 인간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인간세상 안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인간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에 역행하는 것인데 바로 영적인 월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영적인 38선으로 이것을 넘어가면 영적인 월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빨갱이가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을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공산주의자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빨갱이라고 하는 말은 공산주의자를 속된 말로 표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속된 표현을 넘어서서 평생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38선을 넘어가는 자들이 또한 영적인 빨갱이들로 아주,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38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인간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으로, 내가 땅의 것인 인간세상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이 넘어간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이루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에는 내가 없어야 합니다. 이 육체는 인간세상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 안에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몸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마음도 인간세상 안에 있으면서 통일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선민은 몸은 이 세상 안에 있지만 마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38선으로 생각해서 마음이 38선을 넘어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선민입니다. 이게 바로 빌3:18절에서 사도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돼 버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죽음으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도 아닌 것은 원래 하나님의 원수로 있으니 십자가의 원수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십자가 38선을 넘어서 세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아직도 이 세상 안에서 내 마음이 기뻐할 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저런 일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다니는 거지꼴의 형태가 바로 38선을 넘은 영적 월북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이 세상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는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늘과의 관계에서 끝장을 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끝장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돈 많이 벌리면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고, 돈이 벌리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었으므로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불만하고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벌린다고 내가 특별하게 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죽었다는 것인데 믿지 못하면 마음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세상에 들어가서 '이게 잘 돼야 되고, 저게 잘 돼야 되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38선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서만 마음이 정해져 있을 때 몸이 있는 이 세상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의한 내 몸과 관계된 인간세상에서의 통치와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바울이 갈2: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38선으로 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몸이 있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 대신 생활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모세가 시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십일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여호와의 장막인 회막(성막) 건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중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자행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해서 홍해 도하사건, 지금 5-6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광야에서의 만나와 식수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시내 산에 강림 하실 때의 나타나던 이상적인 현상들을 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한 것을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24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회막 건립에 대한 긴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막의 모든 의미가 번제단에 집중되면서 상번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번제의 의미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위해 분향단의 얘기가 나왔고 기도의 내용인 물두멍, 속전, 관유, 향품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신약의 주의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기적적인 체험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확증부터 선택하심의 확증과 만나를 먹이시므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십계명과 삶에 필요한 모든 규정까지 하나님의 방침과 규례와 원칙이 다 주어졌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지 사십일 만에 출애굽과 홍해 도하사건의 역사가 있은 지 6개월 만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 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이방종교에서 행하는 음란한 성적행위를 예식으로 끌어들이면서 망동(妄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심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낙방시키고 합격을 판정하면서 양을 키우는 자들로부터 커미션을 받습니다. 성전세 내는 사람들로부터 세겔을 바꿔주면서 커미션을 받아요.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같은 영적 유전자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법궤와 번제단이 회막 의미의 양대 기둥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이 사건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이 사건은 성경 상으로는 앞뒤로 기술이 돼 있지만 실지 일어난 시간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중에 어떤 것은 길쭉하게 생긴 것을 가로로 들면 화면이 둘로 갈라지는데 이걸 듀얼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이 듀얼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모세가 시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성막 건립에 대한 지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오른쪽 화면에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옆에 왼쪽의 화면에 지시되고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상번제, 번제단이 필요한 이유는 법궤가 있기 때문인데 법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견과 생각과 말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 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살았으므로 죄인이에요. 도둑질한 언어로 내 인격이 침투돼 있으므로 번제단에서 죽어야 해결이 됩니다.
법궤와 번제단이 회막 전체의 의미를 지지하고 있는 양대 기둥으로 왼쪽에 나와 있고, 오른쪽 화면에는 금송아지가 나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아론이 대제사장 예정자 아니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예정자들인데 금송아지 숭배에 다 참여를 합니다. 상번제를 내 것으로 생활화하지 않는 한 그 누구라도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이런 망동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앞뒤로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번제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 의미가 내 뼛속까지 침투되지 않는 한, 선민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모든 행복해질 수 있는 말씀을 다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단 하나 상번제의 의미가 매일 같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예외 없습니다. 교황, 원로목사님, 은퇴목사님, 원로은퇴 장로님, 권사님 그 누구도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도 상번제 의미 자체가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반드시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상번제의 의미를 망각하고 생활한다면 반드시 지금 강단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유수의 굴지의 교회의 당회장으로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상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의 죽음이 이 인간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세상 안에는 목회도 사업도 가정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내 마음이 인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목회자는 목회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가장은 가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사장님은 사업체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애인은 자기 애인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인데 애인도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월북을 해버리면 금송아지 숭배를 한다는 것이고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의 참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상화돼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신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차적인 행위로 다른 신은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입니다.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이에요. 돈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돈이 신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기쁘다고 믿는다면 그 건강이 신이 됩니다. 자식이 잘돼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자식이 신입니다. 이렇게 신이 결정되면 우상이 신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낳지 못한다면 삼신할머니를 부릅니다. 우리 사위가 과거에 급제해야 된다고 하면 고목나무에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부엌살림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장독대에 북어 한 마리 놓고 절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다른 신에 따라 우상이 결정됩니다. 금송아지는 '오시스'라는 애굽의 신인데 이게 풍요와 다산을 결정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열 재앙" 할 때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이 있었는데 개구리 형상을 한 '헤카'라는 여신이 있는데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은 항상 남녀

로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남신)과 아세라(여신)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시스'가 풍요의 남신이고 '헤카'가 풍요의 여신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풍요와 다산으로 재물입니다. 돈이고 부흥으로 숫자적으로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고 기쁘다고 믿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상번제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만 나의 기쁨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봄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곧바로 마음은 이 세상 안으로 월북을 해 들어가게 되고 월북을 해 들어가서 영적인 빨갱이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기쁨을 줄 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월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가 영적인 북한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민은 주님께서 죽으셔서 이쪽으로 불러낸 사람들이고 세례를 받으므로 세상에 대해 죽기로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38선을 넘어서 월북을 해버립니다. 월북을 하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세상에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이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아예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없다고 믿으면 불평과 불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8선 넘지 않고 십자가 38선 이쪽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오순절 강림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서 기쁘고 만족한 마음이 될 때 내 몸이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해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마치 살아있는 태블릿pc처럼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 주시고 써주실 때 그 내용을 따라 내 몸이 움직여 가면서 살게 됩니다.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늘로 이미 기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민인데 38선을 넘어버립니다. 왜 넘어요? 한 순간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안 보면 마음은 38선을 넘어 월북해 버리고 월북한 마음에 당장 걱정, 불평, 불만,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데 없고 얻을 수 없고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걱정이 생깁니다. 하여간 걱정과 불만이 생겼다고 하면 38선을 넘어 있는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38선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제사장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지금 금송아지 숭배에 영적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38선, 그 38선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 죽었으므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늘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의 영적 빨갱이 노릇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38선을 마음으로 간과하고 세상에서 다른 신을 찾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름조차도 우상화해버리는 영적 빨갱이 노릇을 중단할 수 있기 위하여 단 한순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